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년 진입 장벽 높았다

2030 청년 당선인 5명 불과...대부분 40~60대 기초의원 상황 비슷...인재발굴·공천 확대 절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았다. 당선인 대부분이 40~60대 중장년층이었고, 2030 청년 당선인은 5명에 그쳤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비례대표 포함) 91명 가운데 20~30대 청년 정치인은 5명(5.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1.1%), 30대 4명(4.4%), 40대 21명(23.1%), 50대 36명(39.6%), 60대 28명(30.8%), 70대 1명(1.1%)으로 집계됐다.

전체 당선인의 93.4%인 85명이 40~60대에 집중됐다.

청년 당선인은 강성찬(민주당·목포2),

노진성(민주당·광주 동구2), 장성해(조국혁신당·비례), 박민영(민주당·비례), 박진한(민주당·비례) 등 5명이다.

특히 지역구 기준으로는 통합특별시의회 70개 선거구 가운데 목포2와 광주 동구 2 등 단 2곳에서만 청년 정치인이 당선됐다. 나머지 68개 선거구에서는 청년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73명 가운데 청년 정치인은 4명으로 5.5%를 차지했고, 전남은 247명 중 11명으로 4.5%에 머물렀다.

전남에서는 20대 당선인 1명과 30대 당선인 10명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진출 폭은 상대적으로



4일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비례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당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장용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로 높았다.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91명 가운데 여성은 33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기초의원 당선인 320명 중 여성은 106명으로 33.1%를 기록했다.

광주 기초의회의 경우 당선인 73명 중 여성 의원이 38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남은 247명 중 68명(27.5%)이 여성 당선인으로 집계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은 "각 정당이 청년과 여성 정치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당선

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재 발굴과 공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기초의원 화제의 당선인

손혜원 목포시의원, 국회의원서 기초의원으로 전국적인 관심 끌어...라선거구 무소속 출마

6·3지방선거에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전남 목포시의원에 도전한 손혜원 전 국회의원(사진)이 당선됐다.

손 전 의원은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명을 선출하는 목포시의원 라선거구(북원·동명·만호·유달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 전 의원의 이례적인 기초의원 출마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목포 원도심을 아우르는 이 선거구에는 손 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손 전 의원은 개표 초반부터 2위를 유지하며 목포시의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손 당선인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면서 "어떤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 원도심에 관광객들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도심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평소 소신과 결단 때문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목포=이현규 기자 leek2123@

송하진 여수시의원 '무소속으로 4선 당선' '주민 선택에 감사...낮은 자세로 봉사'

여수시의회 라선거구(미평·둔덕·삼일·묘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하진 후보(사진)가 당선되며 여수시의회 최초 무소속 4선 기록을 세웠다.

송 당선인은 이번선거에서 정당 조직 없이도 주민들과의 오랜 신뢰와 의정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송 당선인은 "지난 12년 동안 부족한 것을 믿고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승리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만 단 주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생활정치와 현장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 당선인은 그간 여수시의회에서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당선인은 "4선이라는 영광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박영배 영암군의원 후보, 지방의원 9선 '최다선' 2대부터 9대까지 9선 연임...77세 최고령 당선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박영배 영암군의원(사진)이 최다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배 군의원은 9선의 최다선 기초의원에 전남·광주 최고령(77세) 당선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당선인 중 최다선은 영암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영배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9연속 영암군의원을 지내게 됐다. 그는 1948년생으로 올해 77세로 지역 최고령 당선인이기도 하다.



전국 최다선이던 강필구 영광군의원이 10선 도전을 앞두고 불출마하면서 박 당선인이 지역 최다선의 영인 영광을 안았다.

박영배 당선인은 1985년 제2대 영암군의회의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8대 군의원까지 연속 당선됐으며, 곧바로 9대 영암군의원직을 이어간다.

박영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십년간 지역 정치권에서 연속 출마해 당선된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영암=한창구 기자 hck1342@gwangnam.co.kr

광주·전남 기초의원 당선인

△이름 △성명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구	당선인				
광주 동구	윤순홍(민), 은봉희(민), 최미정(민), 고우람(혁), △다선거구 홍두석(민), 박현정(진), △나선거구 안태자(민), 김대성(민), 박종균(혁)	광산구	△다선거구 안호선(민), 송선우(무), △라선거구 이형완(민), 정재훈(민), 손혜원(무), △마선거구 장국진(민), 조성오(민), 최현주(정), △바선거구 김희영(진), △다선거구 최윤종(민), 강한솔(민), 김은정(진), △라선거구 윤영일(민), 아우형(민), 김명숙(진), △마선거구 임수정(민), 박경환(민), 김영선(민)	곡성	△가선거구 정인관(민), 박종완(민), △나선거구 강기순(민), 김요순(민), 김홍순(민)	보성	△가선거구 문정숙(민), 김경미(민), 남향욱(무), △나선거구 전상호(민), 정상우(무), △다선거구 조영남(민), 윤정재(무)	강진	△가선거구 김호석(민), 윤영남(민), 배홍준(민), 유경숙(무), △나선거구 이나겸(민), 윤영상(민), 김강민(무)	이만진(민)	김기현(정)	장성	△가선거구 차상현(민), 김연수(민), 최미화(무), △나선거구 심민섭(민), 서춘경(무), △다선거구 유태영(민), 봉맹구(무)	신안	△가선거구 김혁성(민), 최영진(민), △나선거구 이상주(민), 문선웅(민), △다선거구 김학기(민), 권오연(무), △라선거구 강대성(민), 김용배(민)	전남	△목포 흥건속(민), 안하늘이(민), 장가영(혁), △여수 최정숙(민), 김석환(민), 최해국(혁), △순천 노금희(민), 이재현(민), 김희강(혁), △나주 정서연(민), 김지니(혁), △광양 이은경(민), 윤정현(민), △담양 김양희(민), △곡성 임원자(민), △구례 서연희(민), △고흥 김인자(민), 김지연(민), △보성 서정옥(민), △화순 주혜정(민), △장흥 김소화(민), △강진 김경(민), △해남 김미경(민), 김연수(민), △영암 심애란(민), △무안 정소혜(민), △함평 김봉선(민), △영광 김선옥(민), △장성 이지연(민), △완도 김매숙(민), △진도 조난영(민), △신안 최성자(민)